

[UCL]세 번째 도전도 실패, '전설' 부폰의 눈물

등록 2017.06.04 11:48:22 | 수정 2017.06.07 20:58:58



Juventus goalkeeper Gianluigi Buffon waves after the Champions League final soccer match between Juventus and Real Madrid at the Millennium stadium in Cardiff, Wales Saturday June 3, 2017. (AP Photo/Dave Thompson)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잔루이지 부폰(39-유벤투스)이 '빅 이어(챔피언스리그 트로피)' 목전에서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벤투스는 4일(한국시간)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1-4로 패했다.

21년 만의 유럽 정상을 목표로 출격한 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파상공세에 가로 막혔다.

2001년부터 유벤투스 생활을 시작한 부폰에게는 세 번째 실패였다. 2002~2003시즌 리그 라이벌인 AC밀란에 승부차기로 저 준우승에 머문 부폰은 2014~2015시즌에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무너졌다.

만 39세의 부폰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어쩌면 부폰에게는 마지막 결승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유벤투스 팬들 역시 승부조작 파문으로 인한 2부리그 추락에도 자신들을 떠나지 않은 부폰의 성공을 바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폰은 '빅 이어'와 연이 닿지 않았다. 운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과 카세미루의 두 번째 골 모두 수비수에 맞고 굴절돼 골망을 흔들었다.



Juventus goalkeeper Gianluigi Buffon, right, appears dejected as UEFA President Aleksander Ceferin shakes hands with Andrea Barzagli, centre, after they lost 4-1 in the Champions League Final soccer match between Juventus and Real Madrid at the Millennium Stadium in Cardiff, Wales, Saturday, June 3, 2017. (Nick Potts/PA via AP)

조별리그부터 준결승까지 단 3골만을 내줬던 유벤투스는 하루 만에 4골을 헌납했다. 천하의 부폰도 어쩔 수 없었다.

부폰은 "선수들 모두 실망하고 있다. 전반에는 좋은 플레이를 했지만 후반 들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경기가 끝난 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부폰은 시상식에 참석해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연히 표정은 어두웠다.

hj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